

<코로나19 집단감염, 쿠팡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로켓배송’에 가려진 노동권 제로 기업,
쿠팡은 광고 뒤에 숨지 말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 일시 : 2020년 8월 18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잠실 쿠팡본사 앞
- 공동주최 :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를 비롯한 80여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참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비정규직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의당노동본부, 천주교예수회,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발언
취지설명 및 참가자소개	사회자: 김소연
발언1. 여는 발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 권영국 대표
발언2. 쿠팡 코로나19 피해자 발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발언3. 쿠팡 부당해고 노동자 발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고 건 대표
발언4. 노동자 외면하는 쿠팡 규탄발언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신창선 본부장
발언5. 감염법 위반 및 부당해고 규탄발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정병민 변호사
발언6. 현장의 노동안전 실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활동가
발언7.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현황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
발언8. 종교계 규탄발언	천주교예수회 김정대 신부
시민사회 입장문 낭독	시민사회단체
상징의식	사회자

[기자회견 취지]

1.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지 87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는 쿠팡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재발방지대책도 없이 재가동 중인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 퇴사를 종용하는 인권침해를 가하고, 두 명의 노동자는 계약해지, 사실상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2. 최근 가족이 전염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전모 씨에 대한 산재승인 판정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현행법 상 본인에 대한 산재인정일 뿐 가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지원도 없습니다. 전씨는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며 시설 내 식당조차 이용하지 않았지만 쿠팡의 방역미비로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남편은 현재 의식불명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생사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이들에게 건네온 건 위로나 사과의 말이 아닌 내역증명도 해주지 않는 정체불명의 급여지급이었습니다. 근무를 할 수 없는 전씨에게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더니, 월급일에는 통장에 430만원을 입금해놓고는 내역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그 돈이 남편의 목숨 값 이냐며 분노하며 환급을 원했지만 쿠팡측은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이 건강악화는 물론이고 직장을 잃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집 앞 가게에도 쉽게 가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쿠팡은 코로나 특수로 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류업계 '택배없는 날'을 맞아 쿠팡이 전면으로 내건 택배기사들의 주5일 근무응원 광고는 쿠팡에서 휴일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물류업계 대대적인 휴업에 풍선효과로 쿠팡이 이윤을 늘린 만큼 쿠팡맨을 비롯한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치솟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센터의 폐쇄로 인근 물류센터의 작업량이 2~3배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량증가로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사업장내 거리두기 등 기초 방역이 다시금 무너지고 있고, 노동자에게 개인 방역복을 지급하면서 세탁은 알아서 해오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쿠팡은 고작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며 건강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실상은 코로나 19 방역실패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노동자를 두 번 울리는 나쁜 기업입니다. 단 한번의 사과도 없이, 사태를 덮으려고만 하는 쿠팡에 대해 더 큰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는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쿠팡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 노동권보장을 비롯하여 인권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우선시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발언 내용]

■ 여는 발언 :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 권영국 대표

쿠팡은 현재 1만여명에 달하는 임직원을 고용하고 2019년 매출액이 7조 1407억원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매출액이 1위인 업체다. 쿠팡은 로켓배송, 당일배송 쿠팡맨 정규직 직고용, 쿠팡 배송기사들의 주 5일 근무를 홍보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생활의 급증과 특수는 쿠팡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구축한 기업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로켓배송으로 상징되는 신속배송을 슬로건으로 다른 이커머스 기업과의 차별화하고 시장지배력과 시장점유율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바로 그 로켓으로 인해 쿠팡 노동자들은 극심한 노동강도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쿠팡은 좋은 일자리라는 기업이미지와는 달리 일용직이 70%, 계약직이 26.8%를 차지하고 정규직은 2.7%에 그칠 정도로 불안정노동의 대표업체이다. 좋은 일자리라는 이미지는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이미지일 뿐이다. 노동조합도 존재하지 않으며 관리자들에게 의한 폭언과 횡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관리자 집단에 의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노무관리의 당연한 결과이다. 빨리빨리 라는 속도전에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3일 부천신선센터에서 대규모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쿠팡이 질병에 얼마나 취약한 사업장인지 세상에 드러냈다. 방한복과 안전화를 세탁도 없이 돌려쓰고 방역되지 않은 작업대와 노트북이 공유되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도 2일간이나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노동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에 방치시켰다. 그로 인해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가족 및 동거인에게도 전파되어 한 근무자의 경우 남편이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2개월 이상 되는 사업장 폐쇄, 그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확진과 자가격리 그리고 사회적 낙인 등 그로 인한 고통은 삶의 안정을 무너뜨렸다. 회사의 방역 잘못으로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고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근무자에게 산재가 승인되었음에도 쿠팡은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피해자들은 피해와 고통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구했으나 자신들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침묵으로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다.

사업장은 영업을 재개했으나 기존의 작업환경은 형식적인 방역에 그치고 있고 밀집된 작업환경과 혼재된 작업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언제 또다시 코로나 감염 사태가 터질지 근무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쿠팡은 광고를 통해 방역에 철저한 업체인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기업이 존중받을 수는 없다. 겉과 속이 다른 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에 요구한다.

■ **쿠팡발 코로나19 피해 고발 발언: 피해자모임 (전모씨 참석예정이었으나 남편의 상태악화로 피해자모임에서 대독하였습니다.)**

저는 쿠팡 부천신선센터에 4월28일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층과 2.5층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근무한날인 5월12일부터 섣달인 5월25일까지 조퇴나 결근없이 정상근무를 했으며 5월26일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고 남편과 딸도 27일 확진받아 인천의 료원에 가족모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23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24일 출근했을 때 몇 백명의 계약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을 2층 야외로 몰아넣고 지금부터 호명하는 사람들은 밀접접촉자이며 보건소 검사 후 자가격리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어느 시간에 일했는지 문자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뿐이고 말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동요하는 근로자들에게 방역은 철저히 했고 여러분들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일하라고 작업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퇴근을 한 시간 남긴 새벽1시쯤 직원들을 이리저리 나누어 2인1조로 다닥다닥 붙여 일을 하게 하였고 연장2시간 까지 시키며 마치 아무일도 없는듯 지나갔습니다.

25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출근을 했고 출근후 2시간이 지난 오후7시에 주변정리를 하고 휴게실로 모이게 한 후 인사팀 관리자가 섣달을 발표하고, 별도의 연락이 있을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고 했으며,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확진자가 또 나왔냐?' '확진자가 마스크도 안쓰고 일했다는데 어디서 어느시간에 일했나?'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우리는 모르고 확인해줄 수 없으며 위에서 시키는대로 말할뿐 이라는 앵무새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쿠팡 입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이고 쿠팡도 피해자이며 부천보건소와 일본의 메뉴얼대로 소독과 방역을 했으니 쿠팡 잘못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사과 할수 없다고 하면서도 고객들에게는 즉각적 사과와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쿠팡의 미숙한 대처가 얼마나 많은 확진자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자면

첫째.

저는 22일과23일이 휴무인 관계로 23일 확진자가 나온걸 알지 못한채 24일 정상출근을 했고 이때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나 섣달을 했다면 결과는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둘째.

밀접접촉자들을 전화로 연락해 보건소 검사후 집에서 자가격리 하라고 했으면 됐을 일을 굳이 출근시켜 몇백명의 근로자와 다시 접촉을 시키며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셋째.

감염병은 거리두기도 중요한데 쿠팡은 출근할때, 작업장 들어갈때, 식당 이용할때, 퇴근할때 수십명의 사람들을 다닥다닥 붙여 줄을서게 하고 마스크를 내린채 출근체온을 재고, 작업장에 들여보내고, 식당을 이용하게하고, 퇴근을 시키기 때문에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한 밀집형태입니다.

넷째.

작업대PC, PDA, 작업복, 안전화 등 작업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소독과 세탁없이 같이쓰고, 입고, 신게 하면서 개인위생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감염병인 코로나19를 확산시켰습니다.

다섯째.

공기 중 비말과 접촉만으로도 감염이 되는 코로나19인데 물량이 많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4 번 물량 시간에 맞추기 위해 2인1조로 다닥다닥 앞뒤로 4명이 좁은 작업장에서 밀접하게 일하였습니다.

여섯째.

가장기본적인 방역수칙이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인데, 관리자들은 빨리하라고 소리 지르고, 재촉하기 위해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미착용인 상태로 근로자들 사이를 오가며 감염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일곱째.

신선센터의 특성상 냉장, 냉동 온도유지가 필수인데 이런곳은 환기자체가 불가능하고 창문도 없어 바이러스가 공기중에 떠다니는 밀폐된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덟째.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했다고 했지만 오전, 오후, 심야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내내 소독하는걸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밀집, 밀접, 밀폐된 환경에서 부천보건소와 일본이 시키는대로 방역을 철저히 했다고 했지만 다른 물류센터에서는 한두명에 그친 확진자가 쿠팡에서는 152명이나 나왔다는 게 방역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반증입니다.

그에 반해 저는 락커룸, 식당, 통근버스, 흡연실, 엘리베이터 등 다수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은 이용 하지 않았고 자차로 출, 퇴근 하며 근무 중에도 마스크, 장갑 철저히 착용했지만 코로나에 걸렸고, 회사가 철저히 해야 하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도 저처럼 가족까지 감염 될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상태

남편은 55세이고 기저질환 없이 경증으로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5월27일 인천의료원에 입원해, 아무일 없이 치료받다 나오리라 생각했지만, 6월2일 상태가 안좋아져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다 입원11일째 되는날 급성호흡부전으로 심정지가 왔고 3달가까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저와 딸도 입원기간동안 생긴 근손실과 시력저하, 정신적 트라우마, 무기력증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지만 상태가 심각한 남편과 아빠를 보며 아파도 아파 할 수 없고 오로지 남편의 쾌유만을 빌고있지만, 현실의 남편은 중심 정맥관 시술, 오른팔 정맥관 카테터 삽입, 기관절개, 콧줄, 소변줄, 각종 생명유지 장치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세균감염에 의한 고열과 폐렴을 이기며 오늘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6월7일 일요일 오전11시58분에 남편이 영상통화를 걸어, 저와 딸아이의 안부를 물었고 '우리는 괜찮아 당신은?' 하고 물으니 '나도 괜찮아' 하며 안심시키고 4시간 뒤 심정지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그 영상 통화가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 말이 유언이 아니길, 기적이 일어나길 오늘도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쿠팡의 안일한 대처가 한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파괴 하는 데는 불과 며칠의 시간이었지만 남편을 비롯한 저와 딸아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끔찍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코로나19 피해자들은 당연히 알아야하는 확진자의 동선을 근로자들에게 함구하면

서 근로자들이 대처할수 없게 만들고 근로자들의 안전의무에 소홀하고, 회사의 이익만을 쫓아 택배 물량시간을 맞추기 위해 근로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부천신선센터 책임자의 처벌과 김범석 대표의 진심어린 사과, 그에 따른 책임과 보상만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쿠팡 부천신선센터 부당해고 노동자 발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고건 대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7월 30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진통제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산재(승인받은) 노동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계약연장이 되었는데 왜 나만 해고 되었을까, 회사가 왜 나를 싫어할까 생각해봤습니다. 사측에서는 이 일을 퍼지지 않게 넘어가야 하는데 본인들 책임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코로나19 피해자를 대변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를 해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산재기간 중에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뿐 아니라 코로나가 무섭고 안전보장 안되는 상황에서 일부 센터는 무조건 다음달부터 연장근무를 지시하고 휴게시간도 안주면서 자발적 퇴사 강요하고 있다. 광고에는 본인들은 사회적 책무 다한다고 하고 있지만 더이상 광고 뒤에 숨어서 추악한 가면을 쓰고 악행을 하지 말고 계속 그런 악행을 한다면 피해자모임과 지대위가 힘을 합쳐서 가면을 찢어주겠다.

■ 노동자 외면하는 쿠팡 규탄발언: 신창선 공항항만 본부장

당당한 사람은 비겁하게 뒤에 숨지 않는다. 쿠팡이 물류사업을 처음 시작할때 포부가 있었을 것이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 쿠팡은 언론에 거짓 홍보활동을 하면서 국민을 교란시키고 있다. 쿠팡에 노동조합이 없는 게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는 해를 넘기고 단체교섭을 지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실무 대표교섭 번갈아가며 교섭을 하지만 앵무새같이 법과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일년이 넘도록 기본협약체결도 못했다. 쿠팡 사측은 국민의 저항을 받아야 한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노력을 방치하고 있다. 쿠팡에는 70프로 넘는 비정규직과 5% 이내의 정규직이 있다. 쿠팡은 앞뒤가 다른 기업이다. 대한민국운영은 대통령이 책임지듯이, 기업의 운영은 기업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쿠팡 3공동대표는 지금까지의 일을 수습하고 진실하게 사과하고 이 상황을 잘 처리해 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분노해서 쿠팡의 실상을 밝히는 것은 쿠팡이 보다 각성하고 코로나 사태 후 벌어진 불법부당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쿠팡은 앞으로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으로 노사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측의 일방적 욕심으로 저질러진 코로나19 대확산사태를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 감염법 위반 및 부당해고 규탄발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정병민 변호사

쿠팡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 법률지원팀 정병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쿠팡의 두가지 거짓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쿠팡은 부천물류센터 발 집단 감염은 이태원을 방문했던 학원 강사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학원 강사의 거짓말 때문에 쿠팡이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쿠팡

팡의 추가확진을 잘 막았을 것이라고 뉴스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강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확인된 5월 23일 이후, 쿠팡은 24일에도 계약직,일용직 노동자 수백명을 한 곳에 몰아두고 사측이 밀접 접촉자로 추정된 몇몇 노동자만 호명하여 추출한 뒤 나머지 노동자들은 정상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확진자인지, 언제 어디서 어느 시간에 일했던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쿠팡이 제대로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그때라도 제대로 알렸어야 합니다. 그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 다음날인 25일도 물량을 열심히 맞추다 물류센터의 폐쇄를 통해 코로나19 추가 확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쿠팡은 쿠팡발 코로나19 감염 사태의 사업주의 산안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산안법을 위반한 명백한 법적 책임자입니다.

둘째, 쿠팡은 쿠팡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린 계약직 노동자 두명에 대한 해고를 단순한 계약만료 통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산재 요양 기간에 있어 절대적으로 해고로부터 보호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계약만료이기에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3년 전 한 쿠팡맨이 비가 오면 차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 신발을 벗고 차에 타야 한다는 회사 규정을 따르다가 미끄러져 인대 파열을 겪었습니다. 쿠팡은 요양 중이던 그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쿠팡맨이 계약직 노동자여서 기간의 정함이 있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 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쿠팡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에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법원 판결은 쿠팡의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쿠팡맨의 근로조건은 피해자 모임의 계약직 노동자 두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여전히, 이들은 계약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단순 계약 통보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거짓으로 뒤덮힌 뉴스룸에서 나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사과와 함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십시오.

■ 현장의 노동안전 실태 고발 및 규탄발언: 한노보연 이나래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나래입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쿠팡을 규탄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길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천신선센터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물리적 환경에 놓인지 오래였습니다. 쿠팡 사측

에선 충분히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강조되는 '거리두기'가 쿠팡에선 이뤄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훼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근무자 97%가 비정규직입니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할 수록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필요로하는 정보를 요구하기 어렵고, 사업장의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헐값에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로켓배송이라는 쿠팡을 상징하는 선전문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극심한 노동강도로 가능했습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PDA를 하도 만져 손톱이 나가고 손끝에 잡힌 물집으로 고통을 호소해도 관리자들은 속도만을 중시하며 빨리 빨리만 외쳐댁니다. 감시하는 관리자때문에 화장실도 마음 편히 다녀오지 못합니다. 결국 올해 5월 인천 4물류센터에서 출고 공정에서 일하던 한 계약직 남성 노동자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겐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년 전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사측에서 화재 발생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대피시키지도 않았고, 안내방송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험을 거부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알려지지 않은 안전사고 문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공동체에서 배제와 낙인, 차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김범석 쿠팡 대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 모두 망가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급속한 성장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제 노동자의 목숨까지 담보로 하는 모든 무책임한 행동을 멈추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출발은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나서는 것일 겁니다.

■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현황: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인권침해실태조사를 하며 만난 노동자들은 불안과 좌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쿠팡은 안전도 고용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2차 확산 조짐을 보이는 이 순간 쿠팡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안전할수 없다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한 방역지침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따르지 못하더라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쉬라고 하지만 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대부분 계약직 일용직 비정규직이라 조금 아프다고 쉬면 일자리가 사라지기때문 입니다. 3개월, 9개월 단기계약이라 아파도 쉬수가 없습니다. 최근 쿠팡에서 만든 쿠팡 광고와는 딴판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실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 등 고용구조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더니 영업비밀입니다. 고용구조기 무슨 영업비밀

입니까! 쿠팡엔 배달노동자만이 아니라 주문 온 물건들을 배송하기 쉽게 모으고 포장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계약직, 일용직입니다. 이번 집단감염된 부천신선센터 외에도 전국에 많은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는데 방역은 했겠습니까! 방역을 하려면 소독을 한 후 노동자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한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사전예방조치만이 아니라 사후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러 사람이 말했듯이 확진자가 발생한 것도 알리지 않고 일하게 했습니다. 알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7월 영업을 재개한 후에도 잠깐 달라진 듯했으나 그조차도 엉터리거나 다시 뒤로 가고 있습니다. 방한복을 이제는 지급한다고 하는데 세탁은 노동자가 알아서 하랍니다. 어떻게 방역이 됩니까! 안전관리사라는 사람인 왓쳐를 고용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1m 간격을 표시하고 자리를 떠나지만 못하게 하는 게 전부입니다. 초기에 물량이 없어 앉아 쉬었다고 두시간씩 벌을 세우는 일까지 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노동존중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량이 많아지자 이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손소독제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물량을 해결하려고 2인1조로 밀착해서 일하게 합니다. 노동강도를 완화시킬 인력수급은 없고 환기를 위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도 하지 않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쿠팡 대표가 피해노동자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하십시오. 정부는 피해노동자와 가족의 겪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권침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쿠팡은 실태조사 전체 결과를 발표하기 전이라도 당장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도 책임이 큼니다. 시민사회는 피해노동자와 함께 쿠팡의 태도를 지켜볼 것입니다.

■ 종교계 규탄발언: 천주교예수회 김정대 신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쿠팡집단감염을 보면서 저는 사제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상상력은 뉴노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노멀(New Normal)은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의 경제용어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방식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표준은 '자본이 아닌 자연친화적 인간중심적,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안전하게'가 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만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도 부당함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김범석대표는 사과와 면담요구에 응하기를 요구합니다.

[시민사회 입장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김범석 쿠팡 대표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경험하며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감염병을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센타 노동자들, 쿠팡 등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염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대면 코로나19 시대에 좁은 공간에서 더욱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았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더 취약했던 것입니다.

감염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완치된 후에도 사회적 낙인과 가족 감염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감염병이 발생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격리되고 생계의 위협을 당해야 했던 노동자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쿠팡 부천신선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족 감염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쿠팡의 피해노동자들은 노동자 스스로가 뭉쳐서 목소리를 낼 때에야 비로소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을 구성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모임을 응원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꾸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모임과 함께 김범석 쿠팡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의 면담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 해결은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쿠팡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회사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동자들이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급 기준도 알 수 없는 금액을 ‘휴업급여’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입니다.

넷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만나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검혀히 경청하고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물류센터 작업장에서는 현재도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불안하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의 부실대응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산재 치료 중인 노동자를 해고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로켓배송’이라는 화려한 소비자 광고 뒤에 숨어 노동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는 기업경영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작업장 예방 지침을 내린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취약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상시적으로 살피고 쿠팡처럼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노동자들이 직접 고발하는 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트라우마 치유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할 때 혹은 복귀 이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현장에 재발방지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었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정부도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일터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의 곁에서, 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일터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NCKK인권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노동건강연대, 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늘품약사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라이더유니온, 문턱없는한의사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재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노동본부,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전국회의,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JPIC 위원회,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광장,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플,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지원대책위, 통일문제연구소, 통통톡, 평등노동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장을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형명재단 (이상 80개 시민사회단체)